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4, Vol. 21, No. 1, 107-125
http://dx.doi.org/10.16983/kjsp.2024.21.1.107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의 이중매개효과*

김 주 은 안 현 의†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과 학업무기력이 이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Mplus 7.0과 SPS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접근목표와 학업무기력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을 거치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각각이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학업무기력 변인을 거치지 않는 간접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무기력 변인이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연구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학업지연행동으로 부적응을 경험할 때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 변인을 고려하여 상담적 개입을 해야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중국인 유학생,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 성취목표지향성, 학업무기력

---

* 본 원고는 석사학위논문(2020)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 포스코관 425호,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Copyright ⓒ2024,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교육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의 시대가 된 지 오래이다. 이는 국제 수준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세계화 촉진 및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 자원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던 'Study Korea Progect(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 등의 대학 평가에서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국제화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배경 때문이다(배상훈 등, 2013).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도 유학생의 안정적 유치를 위해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며(교육부, 2021),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4,803명으로, 2015년 55,739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중국 국적 유학생은 60,521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하지만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지원 체계나 학사운영 및 복지정책의 뚜렷한 개선책들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학생의 양적 확대만 가속화됨에 따라,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윤희 등, 2022). 무분별한 입학허가와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유학생들은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적응문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이명희, 2014). 구체적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학습 기술 부족,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어려움 등으로 학업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Hu & Zhang, 2013), 관계적 측면에서도 언어장벽으로 한국에 유학 왔으나 정작 한국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최윤희, 이정은, 2016), 일상과 학업성취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져,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휴학을 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업 중도탈락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고홍월, 2017), 실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학위과정 유학생의 학업중도포기율이 3.6%였으나, 2023년에는 6.9%로 집계되어(대학알리미, 2023),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학업중도포기자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가 진정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적응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부적응에 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향을 탐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과제 미루기 행동이라고 발표된 바 있으며(곽이문 외, 2018), 이러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80-95%가 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Steel, 2007). 학업지연행동은 미루는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예상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미루는 행동으로(Steel, 2007), 내적으로는

자기비난,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유발하며(Schraw, Wadkins & Olafson, 2007), 외적으로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 성적이 낮아지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학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Scher & Osterman, 2002).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습 환경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유지원 외, 2013), 대학은 고등학교 때의 다소 타율적인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바뀌며 혼란을 경험하기에 지연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이수민, 양난미, 2011).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입시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에 취약한 경향성이 있고(주남, 2016), 타문화권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학업부담 위에 더해지기 때문에 학업지연행동과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곽이문 외, 2018),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수행회피목표의 정적 영향과 수행접근 목표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확인한 연구(유춘화, 2017), 수행회피목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서윤경, 조경숙 등, 2017) 등이 있었다.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학업이 평가와 관련된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된 바 있다(이지연, 조혜숙, 2011). 이때 평가는 개인의 능력과 가치로 연결되는데 실패에 대한 공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여겨지기에, 자기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음으로 실패를 회피한다는 것이다(De castella & Covinton, 2013). 실패공포는 실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혐오적 신념을 뜻하며(Conroy, 2001), 뒤따르는 실패의 결과로 자기가치가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에(추상엽, 2008), 학업평가상황에서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패공포는 지연행동 전체의 49.4%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Solomon & Rothblum, 1984), 국내 연구들에서도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다(이선영 외, 2016; 백지은, 이승연, 2016; 진주은, 김은하, 2016).

Conroy(2001)는 실패공포를 측정하는 다차원적 평가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 학생들과의 팀 과제를 할 때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지각된 차별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하정희, 2008; 최윤희 외, 2016), 수치와 당황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취업 등 진로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정혜선, 2012),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가지 시간적 사회적 정서적 비용을 들여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이 훨씬 크게 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학생의 학업부적응으로 대표되는 학업지연행동에 개입하기 위해,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과정에 작용하는 변인을 찾아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기여하는 여러 가능한 매개변인 가운데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성취상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나 목표에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에 관련된 통합된 양상(Ames, 1992)으로, 성취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반영하기에(Pintrich, 2000),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적인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희정, 2007). 초기에는 성취목표를 배우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숙달목표'와,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수행목표'로 구분하였으나(Ames, 1992),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에는 접근하고,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야하는 상황은 회피하는 행동 특성을 적용하여, 성취목표지향성을 2X2 4요인(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하였다(Pintrich, 2000).

하지만 이러한 성취목표지향성의 4요인 구조를 타당화한 국내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상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이주화, 김아영, 2005). 동아시아 문화권의 경우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집단주의 문화로 집단과 조직 속에서 개인의 성취를 실현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박영신, 김의철, 정감순, 2004), 동아시아권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서구와 같이 4가지로 분화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이주화, 김아영,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집단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과 영향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수행목표가 높은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하여,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 증명에 중점을 두는 '수행접근목표'와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둔 '수행회피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수행회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숙달회피목표는 학업지연행동과 부적상관 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Howell & Watson, 2007; McGregor & Elliot, 2002; Wolters, 2004). 수행접근목표는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관계로 학업지연행동과는 부적인 관련을 보이지만(이다연, 2018), 수행회피목표는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워, 수행해야 하는 일이나 과제를 지연하는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인 관련을 보인다는 것

이다.

성취목표지향성 관련 변인으로 실패공포도 함께 언급되어왔는데,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는 실패공포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cgregor & Elliot, 2002), 실제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행회피목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실패공포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접근목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서윤경, 조경숙 등, 2017), 이는 수행회피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모형의 경로방향을 바꾸어 실패공포가 성취목표지향성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패공포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학업무기력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패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점차 무기력해지는데, 이 과정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라고 한다(Seligman, 1975; 최현정, 이동귀, 2019 재인용). 학업무기력은 학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학업에 가치를 둔 개인이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Seligman, 1967;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습된 무기력은 기본적으로 반복된 실패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에 비해 비교적 낮은 입학기준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낮은 학업성취도와 학업부적응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업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습된 무기력은 계속된 실패경험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업 부진, 학업포기, 낮은 자존감과 우울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여(문은식, 배정희, 2010), 학업상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유학생들의 학업부적응을 이해하는 데에 학습된 무기력은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학습된 무기력을 거쳐 지연행동으로 가는 유의미한 경로가 확인되었고(정구철 & 조민국, 2017),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실패공포를 거쳐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유의한 경로도 보고되었다(양태연 등, 2018). 또 대학생 전체 집단에 있어서 성별, 통제소재,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지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조성혜, 2017),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학업무기력이 타당할 수 있어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실패공포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도 증가하며,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목표에 따라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가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공포와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피목표 변인들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업무기력이 타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기력 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이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가?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과 학업무기력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Wechat)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커피쿠폰을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는 중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실패공포,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지연행동 척도는 기존 연구들(임성문, 2006; 곽이문 외, 2018; 유춘화, 2017)에서 검증과정을 거쳐 번안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학업무기력 척도는 국내 거주 7년 이상인 중국인 대학원생에 의해 중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문항에 대해 국내거주 4년 이상인 중국인 유학생 2명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설문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응답은 총 278명에 해당되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성 81명(29.5%), 여성 194명(70.5%)이고,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3.37이었다. 유학과정은 학부과정이 194명(70.5%)이었고, 석사과정이 81명(29.5%)이었다.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137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은 7명(2.5%), 이공계열은 36명(13.1%), 예체능계열은 37명(13.5%), 이외에 기타전공은 58명(21.1%)이었다.

측정도구

실패공포 척도

실패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Conroy, Willow 그리고 Metzler(2002)이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PFAI-R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 척도를 임성문(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실패공포 척도는 타인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관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 무능력 자각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두려움 5개 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타인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당황스럽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타인의 관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 등 5문항으로, 무능력 자각의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부족한 내 재능을 탓한다” 등 4문항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 같아진다”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두려움은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된다” 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학업지연행동 척도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itken (1982)이 개발한 학업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허효선(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업적 착수지연과 학업적 완수지연 척도로 분류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적 착수지연은 “과제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된다.”, “나는 중요치 않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등 11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학업적 완수지연은 “일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더 이상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마무리가 늦어진다.”,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빨리 마무리 지을 때가 없다.” 등 7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지연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Elliot과 McGregor(1999)가 제시한 2 × 2 구조 성취목표지향성 이론에 기초해 네 개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 타당화한 박병기, 이종욱(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숙달접근 목표지향성과 숙달회피 목표지향성, 수행접근 목표지향성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 이렇게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행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수행접근목표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등 7문항으로, 수행회피목표는 “틀려서 창피를 당할까봐 수업시간에 스스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제는 다루고 싶지 않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진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취목표지향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각각 .88, .85이고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 척도

학업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병기와 노시언 등(2015)이 개발한 학업무기력 척도를 중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된 무기력을 학업 상황과 관련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 이렇게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통제신념 결여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으로, 학습동기 결여는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등 4문항으로, 긍정정서 결여는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등 4문항으로, 능동수행 결여는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등 4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응답은 “확실히 아니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 6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4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합치도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과 매개경로 유의성 검정은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확인한 후 연구 변인들의 경향성과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를 확인하였고,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실패공포,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따라, 1단계에서는 잠재요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잠재요인의 문항에 대해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잠재요인의 문항에 대해 문항묶음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오차의 분산이 작아 문항의 신뢰도가 증가하고(김수영, 2016), 측정오차 간의 상관이 줄어들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Bandalos, 2002). 또 측정모형의 간명성, 모형적합도 등을 고려할 때, 묶음 형성을 위해 개별문항 개수가 충분하다면 요인 당 세 개 혹은 네 개의 문항묶음이 가장 적절하여(이지현 등, 2016), 본 연구에서도 각 변인에 대해 3-5개의 문항묶음을 형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고 모형적합도 및 경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모수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75)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들인 실패공포,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의 특성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았으므로 변인들은 모두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실패공포는 수행접근목표(r=.34, p<.01), 수행회피목표(r=.39, p<.01), 학업무기력(r=.37, p<.01), 학업지연행동(r=.3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접근목표는 수행회피목표(r=.56, p<.01), 학업지연행동(r=.22,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나 학업무기력과(r=.01,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회피목표는 학업무기력(r=.23, p<.01), 학업지연행동(r=.24,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학업무기력은 학업지연행동(r=.3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때, 잠재변인의 측정을 위해 이지현과 이수영(2016)의 제언에 따라 문항묶음을 제작하였다. 실패공포, 학업무기력 변인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각각 5개, 4개의 문항묶음을 형성하였고, 수행회피목표는 개별문항 5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수행접근목표와 학업지연행동의 경우, 이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크기를 고려한 요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75)

	실패공포	수행접근	수행회피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
실패공포	1				
수행접근	.34**	1			
수행회피	.39**	.56**	1		
학업무기력	.37**	.01	.23**	1	
학업지연행동	.38**	.22**	.24**	.35**	1
M	2.88	3.06	3.00	2.48	3.17
SD	.07	.08	.89	.92	.98
왜도	-.27	-.03	-.01	.43	-.19
첨도	-.04	-.05	-.06	-.37	-.36

*p<.05, **p<.01, ***p<.001

인 알고리즘 방법(Landis et al., 2000)을 사용하여 각각 3개의 문항묶음을 형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값은 385.214(df=155, p<.001),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는 .946, TLI는 .934,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3(90%신뢰구간에서 .064~.083) 그리고 잔차에 기초한 SRMR은 .057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FI가 .90이상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간주할 수 있고, TLI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SRMR이 .08 이하이면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간주한다. 또한 RMSEA가 .05이하일 때는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일 때는 적절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지수는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요인 부하량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실패공포의 하위요인들은 .73-.92의 요인 부하량을, 수행접근목표의 하위요인들은 .81-.91의 요인 부하량을, 수행회피목표의 하위요인들은 .60-.83의 요인부하량을, 학업무기력의 하위요인들은 .45-.85의 요인부하량을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의 하위요인들은 .95-.97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최소 기준인 .4이상으로 나타나(Wang & Wang, 2019), 20개의 측정변인으로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므로,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정을 실시하였고 검정 결과, CFI는 .946으로, TLI는 .934로, 동시에 SRMR은 .057으로, RMSEA는 .073으로 측정모형과 같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그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또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는데, 먼저 실패공포가 수행접근목표(β=.37, p<.001)와 수행회피목표(β=.43, p<.001)로 가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공포에서 학업무기력(β=.37, p<.001)과 학업지연행동(β=.23, p<.001)으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행접근목표에서 학업무기력(β=-.35, p<.001)으로 가는 경로와 수행회피목표이 학업무기력(β=.32, p<.01)으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지만 수행접근목표는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수행회피목표는 학업무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이 학업지연행동(β=.29, p<.001)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접근목표에서 학업지연행동(β=.16, p>.05)으로, 수행회피목표에서 학업지연행동(β=-.001, p>.05)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	df	CFI	TLI	SRMR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형	385.214	155	.946	.934	.057	.073 (.064~.083)

<표 3>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B*	S.E.	β
실패공포 → 수행접근목표	.430***	.074	.368
실패공포 → 수행회피목표	.510***	.079	.434
실패공포 → 학업무기력	.220***	.050	.373
실패공포 → 학업지연행동	.305***	.093	.225
수행접근목표 → 학업무기력	-.177***	.049	-.349
수행회피목표 → 학업무기력	.160**	.051	.318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674***	.180	.294
수행접근목표 → 학업지연행동	.187	.097	.161
수행회피목표 → 학업지연행동	-.001	.101	-.001
외생변수 간 공분산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323***	.051	.55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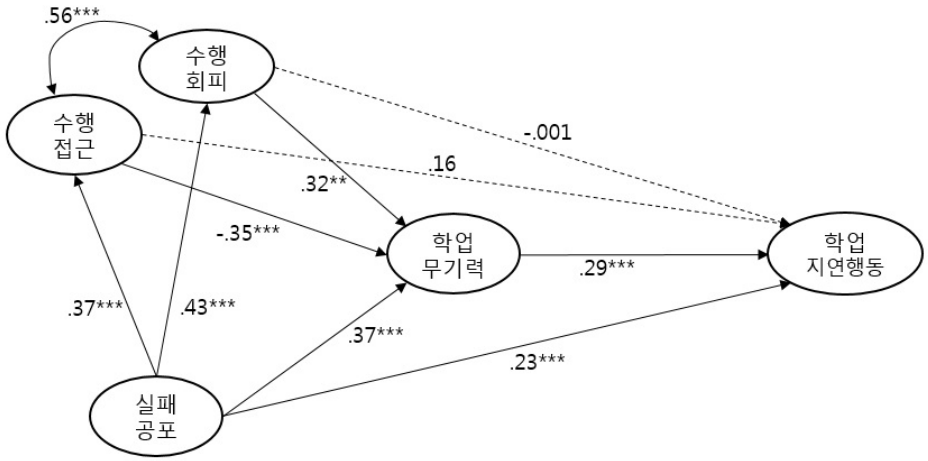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의 매개(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방법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간접)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해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간접)효과가 유의한 것

<표 4>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경로	*B*	S.E.	β	95%CI
실패공포 →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147**	.050	.106	.070∼.268
실패공포 → 수행접근 → 학업지연행동	.078	.062	.056	-.019∼.229
실패공포 → 수행회피 → 학업지연행동	.000	.078	.000	-.155∼.154
실패공포 → 수행접근 →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053*	.023	-.038	-.124∼-.021
실패공포 → 수행회피 → 학업무기력 → 학업지연행동	.058*	.026	.041	.021∼.130
실패공포 → 학업지연행동				
전체효과	.561***	.097	.403	.282∼ .524
총간접효과	.231***	.071	.166	.073∼ .259

*$p<.05$, **$p<.01$, ***$p<.001$

으로 보는 방법으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는 Sobel의 방법보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검증력이 높을 수 있다(김수영, 2016). 부트스트래핑으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 총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패공포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전체효과(β=.40, p<.001)와 총 간접효과(β=.17,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패공포가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β=.1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패공포가 수행접근목표를 거쳐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β=.06, p>.05)와 실패공포가 수행회피목표를 거쳐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β=.0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패공포가 수행접근목표와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가는 경로(β=-.04, p<.001)와 실패공포가 수행회피목표와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가는 경로(β=.04,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패공포,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가 학업무기력을 거쳐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행접근목표와 학업무기력 변인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임성문, 2007)와 일치되는 것이며, 또 실패공포가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피목표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서윤경, 조경숙, 유춘화, 2017)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수행회피목표는 계속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드러

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성취지향성이기 때문에 계속된 실패경험으로 인한 무기력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접근목표와 학업무기력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행접근목표는 좋은 성적을 얻고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성취지향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업무기력과는 상관이 없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하는 다중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였고,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실패공포가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피목표를 거쳐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간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패공포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들(추상엽, 2008; 진주은 외, 2016; 백지은 외, 2016; 이선영 외, 2016)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학업무기력을 거쳐 영향을 주었기에, 성취목표지향성이 직접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Howell & Watson, 2007; McGregor & Elliot, 2002; Wolters, 2004)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학업무기력 변인을 거치지 않는 간접 경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무기력 변인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이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실패공포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수행접근목표는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부적 영향을, 수행회피목표는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가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성적과 이를 통한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성취목표(수행접근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더라도 학업성취에 대해 적극적인 목표지향성을 지니고 있어,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취목표(수행회피목표)를 가진 학생이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학업성취에 대해 수동적이며 회피적인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학업무기력과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지연행동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을 때, 유학생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유학생활과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업을 하려는 유학생들이 있다면, 이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수동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접근하려는 태도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무기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그동안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학업 무기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무기력 변인을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최근 들어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 참여, 과제나 시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국내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처음부터 학업 의지가 아예 없다는 식의 부정적 인상이 강하다. 이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처음부터 학업에 대한 의지나 성취목표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계속된 학업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유학생 개인의 불성실함, 동기 부족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같은 학업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불성실함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제도적 정책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한국 학생들에 비해 낮은 입학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그 격차로 인해 유학생들은 계속된 학업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노력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을 쉽게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학업지연행동과 심리적 부적응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대학에서는 유학생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학업무기력을 경험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입학 때부터 이들이 각 전공에서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각 전공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입학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및 심리적응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는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을 돕기 위해,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개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지방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는 전국 단위로 대상을 모집하여 연구한다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유학생 전체 집단의 국내 대학 적응과 관련하여 보다 타당하고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수의 문항들을 한국어로 제시할 경우, 불성실

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인 유학생들의 정확한 응답과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척도를 중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 3명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지만, 이 척도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업무기력과 같은 척도의 경우, 추후에 실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패공포가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무기력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혔으나 전체 효과에 비해 매개효과 크기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지연행동이 개인 내적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대학의 무분별한 입학허가, 관리 소홀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적 문제 등 기타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같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관련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나 전공과 같은 변인에 대해 별다른 통제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나 전공 차이에 따라 학업적응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홍월 (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고찰. 가족과 상담, 7, 1-6.

교육부 (2021).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ype=N&boardSeq=52802

교육통계서비스 (2022). 202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frontPop/publView?publItemId=92120&survSeq=2022&publSeq=3

곽이문, 허비비, 임현수, 강진령 (201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실패공포와 내현적 자기애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1191-1212.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예: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김희정 (2007), 성취목표지향성과 완벽주의성향 및 자기불일치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2023): https://m.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문은식, 배정희 (2010). 학습사 및 사회적·동기적 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24(1), 183-205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한국아동교육학회

박병기, 이종욱 (2005). 2×2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9(1), 327-352.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23.

배상훈, 홍지인, 송유유 (2013).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참여 실태. 비교교육연구, 23(4), 59-82.

백지은, 이승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3(1), 99-122.

서윤경, 조경숙, 유춘화 (2017),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8(3), 913-934, 아시아문화학술원

양태연, 한기순, 박인호 (2018), 과학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무기력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17(3), 5-28, 한국영재교육학회

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이러닝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 규명.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1), 81-95.

유춘화 (2017),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다연 (2018),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희 (2014). 중국유학생이 성인애착, 자아분석,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학업지연 행동의 기질적, 환경적, 동기적 선행요인 검증. 教育心理研究, 30(3), 635-669.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한국심리학회

이윤희, Xu Nuo, 홍소은, 이은별, 양은주 (2022).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125-157.

이주화, 김아영 (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19(1), 311-325.

이지연, & 조혜숙. (2011). 초등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실패공포의 매개효과검증. 청소년시설환경, 9(4), 35-48.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임성문 (2006).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한국청소년연구, 17(2): 185-211.

정구철, 조민국 (2017), 스트레스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175-185

정혜선 (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상단요구도.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4(2(B)), 949-963.

조성혜 (2017), 상담학 전공 대학생의 통제소재와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 남 (2016),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주은, 김은하 (2016),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성향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패공포와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7(2), 139-156.

최윤희, 이정은 (2016). 재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22, 91-115.

최현정, 이동귀 (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89-205,

추상엽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의 매 개효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허효선 (2012).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Aitken, M. E.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43(3-A)*, 722-723.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Conroy, D. E. (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Anxiety, Stress and Coping,* 14, 431-452.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 76-90

De Castella, K., Byrne, D., & Covington, M. (2013). Unmotivated or motivated to fail? A cross-cultural study of achievement motivation, fear of failure, and student dis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3), 861-880.

Elliot, A. J., & McGregor, H. A. (1999). Test anxiety and the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28.

Howell, A. J., & Watson, D. C. (2007). Procrastination: Associations wi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167-178.

Hu, W. & Zhang, Z. (2013).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problems at university: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cademic Research International, 4(2),* 400-406.

Landis, R. S., Beal, D. J., & Tesluk, P. E. (2000). A comparison of approaches to forming composite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2), 186-207.

McGregor, H. A., &Elliot, A. J. (2002). Achievement goals as predictors of achievement relevant processes prior to task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381-395.

Pintrich, P. R.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The handbok of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Scher, S. J., & Osterman, N. M. (2002). Procrastination, conscientiouses, anxiety, and goals: Exploring the measurement and correlates of procrastination among school-aged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385-298.

Schraw, G., Wadkins, T., & Olafson, L. (2007). Doing the things we do: A grounded theory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12-25.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Francisco: Freeman.

Seligman, M. E. P., & Maier, S. F. (1967). Failure to escape traumatic shoc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4, 1-9.

Solomon, L. J. & E. D. Rothblum(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Wang, J., & Wang, X.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New York, NY: Wiley &Sons.

Wolters, C. A. (2004). Advancing achievement goal theory: Using goal structures and goal orientations to predict students' motivation, cogni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2), 236-250.

원 고 접 수 일 : 2023. 12.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3. 06.
최종게재결정일 : 2024. 04. 22.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24, Vol. 21, No. 1, 107-125

The Effect of Chinese Students' Fear of Failure on Academic Delay Behavior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Kim Joo Eun **Ahn Hyun Nie**

[1)]Chung-Ang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ounselor
[2)]Ewha Womans University/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defined as performance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and academic helplessness have a du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on academic delay behaviors. To this end, data was collected from 275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domestic universiti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stablished using Mplus 7.0 and SPSS 21.0, and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s was analyzed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s between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pproach goals and academic helpless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and academic delay behaviors. Third, performance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both had discriminatory effects on academic helplessness and academic delay behaviors and all indirect paths that did not go through the academic helplessness variabl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on academic delay behaviors. This result confirms that academic helpless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and academic delay behaviors. Based on these results, counseling interventions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lethargy wh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 maladjustment due to academic delay behaviors.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ear of failure, academic delay behavio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helplessness